

<h1 style="margin: 0;">태평양주보</h1> <h2 style="margin: 0;">KOREAN PACIFIC WEEKLY</h2>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훈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27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12월 6일 금요일	Issue No.	1727
		Date	January 24, 1969:Fri.

비에트남 화평 파리 회담본회의 -월二十五일에 개막

(파리 1월 22일밤, 공동) 비에트남 화평실질문제를 토의하는 확대 파리 회담의 제1회본회의는, 닉슨 신정권의 김수석대표 랫지시사를 위시하여 사이공정권 환.단.람, 북비에트남의 스안.도이, 해방전선 찬.후.김의 각수석대표출석하에 25일오전 파리의 국제회의 센터에서 열리기로하였다. 이 일자는 랫지 미수석대표가 21일오후 사이공 정부의 랫수석대표를 방문 회담하였을때, 동맹국 측의 합동제안으로하는것에 합의를본후, 북비에트남 해방전선측과 접촉의 결과, 상대측이 받아들인것이다. 북비에트남과 해방전선은 18일의 4차석대표의 예비 회담에서 제1회본회의를 21일에 열기로 하고있었다. 또 이 예비 회담에서는 제1회본회의 개최에대한 기타의 모든 필요최소한의 수속에 관한 전향적인 합의를 보고있다. 본회의출석자는 4대표단수석이하 전부 약60명이다. 파리 회담은, 이것으로서 새단계를 마치고, 모든 관계자에의한 비에트남 화평의 핵심문제토의에 들어가는데, 교섭이 장기곤란하게 될것은 확실하다. 랫지시사는 21일 본회의의 의제에대해서 "모든 근본문제가 토의 된다" 라고 말하고, 미대표단대변인은 "모든 출석자가 어떠한 문제라도 제기 할수있다" 라고 말하였는데, 미측은 우선 남비에트남 특히 비무장지대에서의 전우행동의 상호 축소를 제1보로한 정전, 남으로부터의 외국군대 (미국동맹국군과 북비에트남군) 철 퇴문제를 우선 토의하려고하고있다. 한편, 하노이와 해방전선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범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에대한 보장으로 정치문제 특히 사이공정부의 변혁을 당면한 긴급요구로서 내세울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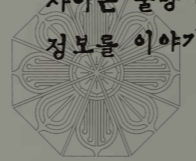
미군사령관 미군철퇴문제를 협의

(사이공 21일밤, 에이 피) 비에트남주류미군사령관 에이부람스대장은 20일, 남비에트남군최고 사령관 가오.반.비엔대장과 한시간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미군의 철 퇴에관해서 토의한것으로 예측된다. 권.반.추 남비에트남대통령은 18일, 비엔대장에대해서 에이부람스사령관과 미군 철 퇴계획을 협의하도록 지령하였다.

존슨특사 추대통령과 회담

(사이공 21일밤, 에이 피) 닉슨대통령의 추사특사 남비에트남 방문중의 존슨신국무차관은 21일 사이공 출방에 앞서 권.반.추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존슨특사는 "우리는 비에트남의 정치, 군사 정보를 이야기하였다. 미군철 퇴문제에대해서는 말하지안했다" 라고 말하고 상세히 설명치안했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비에트남정세의 급부의 예측에대해서, 존슨씨는 "미국의 비에트남정책은 성공하고있다. 나는 미국의 남비에트남에대한 확약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지안했다. 파리회담이 빨리 실질적도의에 들어가, 비에트남에 하루속히 평화가 올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남비에트남에서 대량의 무기탄약 발견

(사이곤 1월23일발, 에이 피) 연합군은 남비에트남전도에서 공산군의 무기탄약, 몰자저장소의 수색을 계속하고, 21일에는 비에트남전쟁에서 두번째로 큰 저장소를 발견하였는데, 22일에도 6개소에서 저장소를 발견, 무기 탄약 10톤 (소화기탄환 16만3천발, 박격포탄, 라켓트포탄 1500발) 식량 15톤을 압수하였다. 과거 26일간에 연합군이 압수한 공산군의 무기, 탄약, 몰자는 포탄, 총탄 백만발을 포함하여 합계 7백톤이 되었다. 이중 거의 대부분이 사이곤으로 간보지아 국경에 걸쳐서 발견되었다. 미군당국자는 공산군이 사이곤에대한 동기공세를 개시하지안고있는 이유의 하나는 연합군에의해서 만든 저장소가 발견된것이라고 보고있다.

산발적인 지상전투

지상전투는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고 각지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있을따름이다. 과거 24시간에 연합군은 공산병 97명을 살해하였다. 공산군은 큰 지상전투를 피하는안편, 연일과감히 도시와 연합군기지에대해서 포격을 가하고있으며, 23일밤도 전야에이어 다난의 미군기지에 7발의 라켓트탄이 발사되었다. 손해는 적었다.

닉슨 대통령, 본격적으로 시무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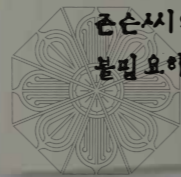
(워싱턴 1월21일발, 에이 피) 20일에 취임한 닉슨대통령은 21일아침부터 백악관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닉슨대통령은 전야에는 늦게까지 각종의 행사에 출석하고 침실에들어간것은 21일 오전 2시반, 그때도 오전7시에는 기상, 30분동할 오렌지.쥬스, 오우트.밀, 커피의 조식을 든후 집무실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닉슨대통령의 책상은 전에 월슨대통령이 쓰고, 또 전의 아이젠 하워정권의 부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쓰던것이다. 닉슨대통령은 우선 보좌관을불러 급부의 정책 진행을 협의하였다.

닉슨 신정권의 각료 11명 취임식

(워싱턴 22일발, 에이 피) 닉슨정권의 각료 12명중, 아직 지명이 상원에서 비준되지안고있는 헛켈내무장관을 제외하는 11명의 취임식이 22일오전 8시부터 백악관의 동쪽.방에서 거행되었다. 11명의 신각료는, 닉슨대통령이 보는중, 월턴 최고재판소장관의 입회하에, 하나씩 손을 들고, 선서하였다. 식은 전국을향해 텔레비전으로 실황중계되었다. 신각료의 취임식과 동시에 메이야 예산국장, 요스드국립대사의 취임식도 거행되었다. 아직 비준이 되어있지안는 헛켈내무장관은 식에 참석하지안했다. 취임식에이어 처음의 각료회의가 세시간에걸쳐 열렸다. 메이야예산국장, 요스드국립대사도 출석하였는데, 헛켈내무장관은 결석하였다.

예산의 지출 삭감되면 부가세 연장 증지도 가능

(워싱턴 22일발, 에이 피) 메이야예산국장은 22일, 첫각의후 기자단에대해서 "닉슨대통령은 협 상으로는 10%부가세를 기한이 끝나는 6월30일이후에도 일년간 연장할것을 요구한 대통령전임 존슨씨의 제한을 지지하고있는데, 만일 내년도예산에서 지출이 충분히 삭감되면, 부가세연장이 불필요하게 될것지도 모른다. (제3편에 계속)



(제2면으로부터 계속)

만일 절연적인 연장을 중지하지안드라도, 적어도 부분적연장으로 지낼수잇슬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또 메이야국장은 "나는 닌슨대통령으로부터, 지출을 댈수잇는데도 자잘르도록 부락을 받엇다" 라고 말하였다.

슈-즈 四호 五호 귀환, 성공

(모스크바 1월18일밤, 데이 피) 라스 통신에의하면, 우주선 슈-즈5호는 18일오전 11시 모스크바 남서 124마일의 구스타나이시부근에 착륙하고, 승무원의 보리노흐우주비행사는 무사히 귀환하였다 17일의 슈-즈4호의 귀환에이어 슈-즈5호도 귀환한것에의해, 미.소를 통해서 처음으로 유인우주선 "닷킹"과 우주비행사의 우주선에 갈아타는것은 이번의 실험으로 완전한 성공을 보았다. 슈-즈 5호는 보리노흐, 구리노흐, 에리세흐 3우주비행사를 래우고 15일에 발사되어, 14일에 발사된 샤도토흐우주비행사가 란 슈-즈4호와 16일에 "닷킹"하고 구리노흐, 에리세흐 양우주비행사가 슈-즈4호에 갈아타고, 슈-즈4호는 한밤앞서 17일에 귀환, 보리노흐우주비행사만이 남아서 18일 까지 비행을 계속하고잇었다. 슈-즈4호의 발사로부터 슈-즈5호의 착륙까지 이번의 실험에 필요한 시간을 합계 96시간 21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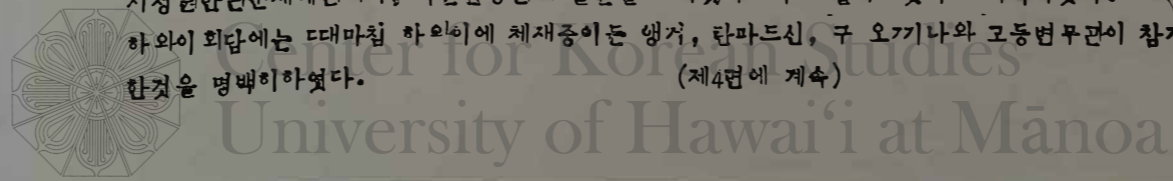
우주비행사 행렬에 피스틀 란사

모스크바의 사건 - 일후에 발표

(모스크바 23일밤, 에이피) 소련외무성이 23일 명백히한바에의하면, 22일오후 첫번의 우주선에 올라타는것을 달성한 슈-즈 4호, 5호의 4명의 승무원의 환영자동차행렬중에 경신이상의 청년이 피스틀 수발을 발사하였다. 선두의 차에 타고잇든 슈-즈4호, 5호의 승무원은 무사하였는데, 그 뒤의 차의 운전수는 경상을 입고, 이에타고잇든 슈-즈3호 (작년 10월에 비행) 승무원 베레고보이 우주비행사가 경상을 입었다. 사건은 동일중에 공표되지만코, 23일에 서측기자단의 질문에대해 소련외무성이 처음으로 동사건을 확인하는동시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외무성측의 설명에의하면, 사건은 오후 2시가 지나, 4명의 우주비행사가 란 차를 선두로한 자동차행렬이 쿠레무린궁전의 입구에 가까이 갔을때 일어났다. 선두의 차가 지나갔을때 행렬을 보러온 수천명의 군중속에서 한 청년이 뛰어나와, 피스틀을 란사하였다. 남자는 직지 군중에게 잡혀서 경찰에 돌려졌다. 이 남자가 아무 목적도업시, 란사한것인가, 우주비행사 또는 그후에따르는 차에 타고잇든 소련 정부수뇌의 누군가를 노린것인지는 아직 확실치안타. 베레고보이 우주비행사는 유리의 파편으로 부상한것으로 란환은 명중하지안했다. 행렬후, 쿠레무린궁전에서 축하회가 열려, 이 모양이 테러 비존으로 실행중계되였는데, 경상을 입은 베레고보이 우주비행사는 부상한것같이 보이지안했다. 헤레비존의 해설자는 이사건에대해서 아무 말도하지안했다.

존슨 신국무차관 오기나와 기지문제로 회담

(와싱턴 1월23일밤, 공동) 미국무성의 정치담당차관에 취임한 존슨전주일대사는 22일밤, 와싱턴으로 들어갔는데, 기자단에대해서, 도중에서 하의이에서 미군당국자의 오기나와기지의 장래에 대해서 회담한것을 명백히하였다. 동차관은 가까운 장래에 닌슨대통령, 라자-스국무장관에게 오기나와외문제도 권고를 낼 예정이다. 존슨차관은 이 가을에 예정되고잇는 사똥수상의 방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자가 언제 될른지모른다고 말하였는데, "사똥수상은 수차례걸쳐서, 오기나와 시정권반환문제에 관해서, 닌슨신정권과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말하고잇다고 지적하였다. 또 하의이 회담에는 대대차관 하의이에 체재중인 생저, 란마드신, 구 오기나와 고등변무관이 참가한것을 명백히하였다. (제4면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닉슨 신정권에 제출해야 할 오기나 의문점에 관한 권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타" 라고 언명을 피하였다.

핵미사일 제한 교섭, 미국이 소련 신청을 환영

(와싱은 22일발, 공동) 미국쿠성당국이 21일 말한바에의하면, 닉슨신정권은 핵미사일경쟁의 제한에 대해서 미국과 교섭을 시작하자는 소련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주 각지에서 대홍수가 발생

(라성 22일발·에이 피) 가주에서는 수일째, 전주에 걸쳐온 비가 내리, 각지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연방기상국에의하면, 가주의 모든 관측소가 21일 비를 기록한것은 기상소 전부가 비를 기록한것은 기상국이 시작한후 처음있는 일이다. 리간지사는 긴급사태선언에 서명하고, 연방전부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중서부의 세인 루이스·오비스보지방에서는 동산간 소년 6명이 홍수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구원에 나선 치안관, 산림국직원등도 4명이 고립된 땅에 남겨져고, 10명의 안부 여하가 우려되고있다. 새사쿠라멘도강은 물이 점점 올라가고있는데, 제방이 허지면, 논총지대에 대타격을 주게 될것이다. 도로는 각지에서 분단되고있다.

한국군함 삼척호가 입항

한국해군군함 삼척호가 지난 1월21일에 진주만군항에 1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입항하였다. 이 한국군함을 수뢰함지선으로 미국에서 제조되자마자 한국해군에 인수된것으로 최심식의 무기, 무전장치를 갖추고있는 기능이 마땅히 조흔 배라고한다. 이 전함은 한국해역에서 주로 적의 수뢰와 어뢰를 집어내는 역할을 할것이다. 이배에는 장교 5명, 사병 3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오는 25일 한국으로향해서 출발하리라고한다. 하와이안인연합회에서는 이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21일 오후 6시반부터 영사관에서 저녁식사회를 개최하였다고한다.

동지회 호상부 대의회 소집 광고

동지회 호상부가대를 방배하기로결정을 보았으나 아직 말리지안모이며, 말릴때까지는 전과 마찬가지로 호상부회무를 계속해가겠으며, 또한 동지회와 호상부의 중요사항이 적치 되어있는데 이 여러사건을 도의결정코저하오니, 래 2월16일 (세재주일) 오후 2시반에 동지회집 회실에서 동지회 호상부대의 회를 개최하오니, 일반회원들께서는 이와같이 양지하시고 당시 만흔 회원이 래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월 20일 동지회중앙부리사장 리 정 근

대한인 선교회 발표문, 대회소집 건

각교회 교우형제 여러분께...

1. 제50회 한인기독교회 년례대표대의회는 1969년 2월 마지막 월요일에 호랑교회 성당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동오후 7시반부터 드다르는 순서는 선두로 성찬찬예식을 거행하기로 되어있사오며, 이어 간단한 기도회가 있기로 되어있습니다.
2. 선택율이 헌장에 표시된데로, 교제가 추측건대 매대표원은 벌써 선택되었스리라고 믿사오며, 그 선택된 대표원등을 파송하기로 요청하나이다.
3. 완비하게 주민 귀교연중성적보고서와 대표회에서 참고로할 각계사람의 건의서와 또 대표원 명부가 올려진 대표증명서 이상 모든 서류를 정비하여 귀교대표원장에 지니고나와, 대표회에 상정하게하도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인선교회서기 박진한 올림